

칭의, 거저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제2회 참교추 컨퍼런스

“가릴 수 없는 복음”

Unveiled Gospel

2014. 10. 27(월)

하늘영광교회

최정균 목사(금파교회)

서론(오직의 교리와 칭의)

어제가 종교개혁주일이었다. 때마침 이 즈음에 영광스러운 칭의 교리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마틴 루터의 ‘칭의 교리에 대한 재발견’은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시발점이 되었다. 칭의 교리는 복음의 핵심으로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교리에 대한 이해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루터 “기독교 교리의 으뜸 조항으로서 칭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토마스 왓슨 “칭의는 기독교의 진정한 주춧돌이자 중심기둥이다.”

존 오웬 “이신칭의 교리가 전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이유가 되며 그것의 주 요점이 된다.”

존 칼빈 “이 교리의 지식이 사라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소멸되며 종교는 폐지되고, 교회는 파멸에 이르며, 구원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개혁주의의 교리적 기저에는 ‘오직’의 교리들(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직’의 교리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복음과 다른 복음, 혹은 유사복음을 차별, 분별, 변별하는 기능을 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욱 날카롭고 선명하게 한다. 루터의 발견은 구원의 조건이 단순히 믿음이나 행위냐의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의 믿음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분성’(sufficiency)**을 발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카톨릭과 개혁주의의 첨예한 구분은 행위냐 믿음이나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은혜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각각 필요조건과 충분조건¹⁾으로 보는데서 온다. ‘오직’(sola)이 충분(족)성을 표현하는 단어임을 감안할 때, 바로 이 충분성이야말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갈1:8)과 ‘다른 복음’(갈1:8,9)을 구분하는 사할이 결정되는 분기점이 된다.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복음의 심장(heart)은 바로 충분성에 있다. 충분성에 대한 의구심이 바로 불신앙이며, 충분성에 대한 확신이 신앙이다. 유해무 교수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5가지의 오직’은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시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²⁾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1) 마크 데버 외 6인, 『십자가를 설교하라』(서울:부흥과개혁사, 2009), 129.

2)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 『개혁주의를 말하다』(서울:SFC, 2011), 26.

Montgomery Boice)는 복음주의자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위대한 종교개혁 교리들인 ‘솔라틀’이며 이 다섯 가지의 신앙 고백 없이 참된 교회, 특히 오래도록 살아남을 교회란 분명히 없다고 평가하였다.³⁾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인 ‘오직’은 성경이 말하는 칭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오직’의 교리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의 교리와 칭의 교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바라기는 이 작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복음진리에 대한 하나의 자극제로 작용하여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칭의 교리에 대한 확신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1. 칭의의 유일한 근거이신 그리스도(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의를 확보하신다.

칭의의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고전 1:23)

롬 5:9; 고후 5:21; 고후 5:12; 롬 5:19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한 것과는 다른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셨다는 사실이다(롬 3:21;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때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준수할 필요 없이, 즉 율법의 도움과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의 의를 계시하셨는데 이 의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할 때에 사람에게 입히는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라고 바빙크는 말했다.⁴⁾ 성경은 죄인의 칭의가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에 대한 만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속죄적 희생과 완전한 순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롬 3:25; 골 1:21,22; 롬 5:9; 롬 5:19; 고후 5:21; 빌 3:8-9). 다시 말하면 칭의는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즉 그의 희생과 순종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은 죄인들을 위한 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칭의의 객관적 근거)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인의 죄책을 제거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의 바깥에 있는 의

죄인에게 주어지는 이 의는 죄인 자신이 획득한 의가 아니라, 루터의 유명한 표현인 ‘외래의 의’(justitia aliena), 즉 사람의 ‘바깥에 있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역사적 사건에 기반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칭의는 법정적인 이미지를 풍성하게 내포하고 있다. 칭의를 법정적 평결로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은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의화)이라는 카톨릭의 정의와는 도저히 부합될 수 없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칭의 교리는 현재 여전히 도전을 받고 논쟁중이며, 심지어 타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신학적,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무관심한 주제다.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모든 역할을 떠맡고, 개신교 신앙의 정체성을 대변하던 것이 오

3)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즈, 『개혁주의 서론』, 김수미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2010), 39.

4)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4』,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219.

늘날에는 케케묵은 어구로, 하찮은 것으로, 유별나고 까다로운 자들만이 흥미를 가지는 따분한 교리로, 교회를 운영하느라 바쁜 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렸다. 복음의 중심에 해당하는 칭의 교리는 현재 도전과 타협이라는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 이미 1994년에 복음주의권의 영향력있는 신학자들이 카톨릭과 복음주의와 카톨릭 연합(Evangelicals and Catholic Together, 이하 ECT)을 형성하고 에큐메니컬 기독교선교라는 명목으로 일치 문서를 내놓았으며, 루터교와 성공회가 칭의론에 대한 카톨릭과의 합의 문서를 내놓고, 감리교까지 가세하여 2006년에 한국에서 카톨릭측과 칭의론에 대한 합의된 문서(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를 내놓고 서약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개신교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은 바뀌었는가? 카톨릭은 1992년도에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요리문답을 출판하였는데 거기에는 종교개혁 신학을 정죄하는 16세기 트렌트 공의회 의화 교리에 대한 확정적 진술을 전혀 수정하지 않음으로서 16세기 이래로 그들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합의된 문서들은 칭의에 대해 논하면서 그리스도, 믿음, 은혜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유독 ‘오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모든 차이점들은 바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은혜’, ‘믿음’, ‘그리스도’라는 각각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말이다.

로마 카톨릭은, 죄인은 주입된 선행적 은혜에 인간의 의지가 협력하여 맺어지는 고유한 의에 의해 칭의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는 칭의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으나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동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칭의를 위해서는 신인협력(synergism)이 필요하다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에 해당한다. 종교개혁에 대항하여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1545-1563에 있었던 트렌트 종교회의는 “칭의는 은혜의 자발적 수납에 의한 단지 죄의 용서만이 아니고 성화와 인간 내면의 갱생이다.”라고 칭의를 정의하였다. 카톨릭에게 있어서 성화는 칭의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칭의의 본질은 ‘바깥에 있는 의’의 전가가 아닌, 주입된 은혜에 기초하여 의지적인 협력으로 그리스도인의 내부에 변화를 가져 온 ‘내적이며 주관적인 의’이다. 카톨릭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롭게 만드시는 것’(의화)이다.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외부에서 선언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는 오류를 바로잡았다. 개혁자들은 칭의가 부분적으로라도 중생된 자의 내재적 의와 선행에 근거한다는 카톨릭의 사상을 거부하고 칭의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다는 진리를 굳게 잡았다. 개혁자들은 카톨릭의 과정적 칭의(의화) 개념을 거부하고, 칭의는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완성을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보속 행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 즉 죄인에 대한 즉각적 선언이지, 중생이나 회심과 같은 갱신 행위나 과정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개신교 복음주의 권에서도 칭의 교리에 대한 현대적인 수정 내지는 재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New Perspective on Paul(바울에 대한 종래의 이해가 잘못되었으며 새로운 관점으로 바울을 이해해야 한다)의 대표주자인 톰 라이트는(그는 자신이 더 이상 새 관점 주의자로 획일

적으로 불리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실제로 새관점론자들로 불리우는 사람들 사이에도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 샌더스가 주장한 1세기 유대교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 즉 “인간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들어가고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머무른다.”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톰 라이트는 칭의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가’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약 백성에 속하였는가’의 문제로 교회론적 신분의 맥락으로 파악한다. 그의 칭의론을 요약하자면 신자가 현재적으로 칭의를 받았으나 그것을 신자의 행위로서 유지하고 상실하지 않아야 최종적인 칭의를 받을 수 있다. 그에게 현재적 칭의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라는 하나님의 선언하심으로서 신자가 이 세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으나, 미래의 칭의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칭의를 심판의 날까지 결코 완성되지 않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궁극적인 칭의를 미래로 연기하고 유보하고 있다. 칭의를 개인적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교회론적 신분의 맥락으로 정의하고, 사람의 생애 전체를 통해 누적된 공로의 총합으로 얻게 되는 궁극적인 칭의를 미래로 유보한 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점은 카톨릭의 의화 개념과 지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저의 소견으로 볼 때에, 라이트는 조직신학적인 시각이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폭넓은 성경 전체의 네러티브가 보여주는 복잡한 문맥들을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고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칭의 개념은 칭의를 교회의 정황에서 고찰하는 제2차 성공회-로마카톨릭 국제위원회(ARCIC II; 8장을 보라)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의 칭의 개념은 칭의의 개인적 성격을 사회적 측면으로 부각시키려는 현대적인 경향과 부합되는 것이기에 대중적인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짧은 칭의에 관한 강의에서 라이트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룬다는 것은 무리이고, 언젠가 라이트의 칭의론만 따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아무튼 그가 로마서 주석에서 칭의 교리에 대해 명제적으로 언급한 부분들만을 간략하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칭의는 마침내 소유가 아니라 행위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칭의는 믿음에 근거해서 선언되는 반면, 미래의 칭의는 공개적으로 (신자의) 전 생애를 근거로 입증될 것이다. 칭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어 살아온 전 생애에 기초해서..... 미래에 발생한다. 즉, 그것은 바울이 재 정의한 의미의 견지에서 보자면 ‘행위’를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말하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로써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생산된 것들에 기초하는 것이다.”⁵⁾ 가이 워터스는 톰 라이트가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기독교 신자의 행위를 의롭다하심의 근거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주장은 사람이 칭의에 공헌하지 못할 만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행위는 죄인이 의롭다하심을 얻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으로 파악하면서 그의 ‘새로운’ 해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오래된’ 것으로서 반 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의 새로운 형태일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성경은 의롭다하심을 얻는 근거로서 ‘사람의 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5) 가이워터스, 『칭의란 무엇인가』, 신호업 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114 재인용.

만을 근거로서 제시한다(롬 4:4-5; 3:20; 갈 2:16). 성경은 의롭다하심을 얻음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나 ‘도덕적 성품’ 등을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배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조항들에 항상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갈 3:10), 하나님의 의지와 부합된 자발적인 순종이라야 하며, 부패하지 않은 올바른 동기에 기인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고의 사랑의 표현이라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인 것이라야 하는데, 본성이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롬 3:20). 심지어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하심을 얻은 후의 행위들도 의로 여겨질 수 없다. 율법의 완전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행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쪽짜리 의에 만족할 수 없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요, 의로서 이것은 죄인들을 위한 대리로서 확보하신 의이다. 로마서 5장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 의해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고 죄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하심을 얻고 의인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아담에 의해 죄인이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핵심이다.

2. 칭의의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믿음(Sola fide)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다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고전 1:30; 롬 5:1; 갈 2:16

칭의의 수단인 오직 믿음

만일 칭의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가? 칭의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다. 주의할 것은 믿음 자체가 칭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으로 획득하신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의를 대체하지 못한다. 죄인은 결코 “믿음 때문에” 혹은 “믿음 덕분에”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다. 우리는 칭의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와 칭의의 수단인 믿음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분해야 한다.

믿음은 공로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획득하신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이다. 성경에서 믿음은 결코 칭의의 근거로 제시된 적이 없다. 헤르만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믿음의 본질 때문에 의롭게 한다면, 이 믿음의 대상, 즉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하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상과 내용으로 삼는(믿음이다). 만일 믿음자체가 사람을 하나님께 용납되게 만드는 공로와 가치를 지닌 행위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갈 2:21).....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행위의 포기(로서),.....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빌 3:9; 롬 10:3-11; 고전 1:30)를 주는 하나님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뢰이다.”⁶⁾

전가의 교리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죄인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전가에 의해서이다. 전가는 본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죄인에게 넘기시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따르면 전가의 교리는 비단 칭의 교리와만 관련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다른 주요 교리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전가의 교리는 세 가지로서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롬 5:12), 그의 백성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사 53:11; 고후 5:21; 벧전 3:18),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에게 전가되는 것이다(고후 5:21; 롬 5:18-19). 워필드는 전가의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인 17세기의 조직신학자들은 전가에 대한 이 세 교리를 기독교의 세 가지 본질적인 교리(인류의 유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핵심으로 확고하게 정착시켰다. 전가의 교리의 중요성은 그것이 이 세 위대한 교리의 중심축이요 그 교리들이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로서 변함없이 존속할 수 있게 해준 후견인이었다는 데 있다.”⁷⁾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전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죄인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능하다. 믿음의 큰 유익은 무엇보다 아내의 그의 남편과의 연합(엡 5:31-32; 계 19:7), 혹은 몸의 그 머리와의 연합(고전 6:15, 19; 엡 1:22-23), 혹은 가지의 그 포도나무와 연합(요 15:1-10; 골 2:6-7)과 같이 죄인과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바빙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전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의롭게 되는 근거인 의는 진실로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이 의는 머리의 의인 동시에 모든 지체의 의이기도 하며, 중보자의 의인 동시에 모든 언약 회원들의 의이기도 하다.”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

칭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기독교 신앙은 죄에 대한 방종적 태도나 부도덕한 행위들을 조장한다는 의심과 오해를 받아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는 이미 바울 시대에도 오해를 받아 반율법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롬 3:8; 31, 6:1, 15 등). 그러나 칭의 교리는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핵심적인 조항으로서 결코 방종을 조장하지 않는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결코 메마른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⁹⁾ 성경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칭의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거룩한 삶을 위한 기초 역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죄인들에게 공급되어 열매를 맺게 한다. 믿음은 칭의와 성화에 동시에

6) 헤르만 바빙크, 246.

7) B. B 워필드, 『구원론』, 지상우 역.(서울: 엠마오, 1989), 11.

8) 헤르만 바빙크, 250.

9)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유한 것은 단지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된 하나님과의 새롭고 바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새로운 삶이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법정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 잔 그레스햄 메이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심명석 역.(서울: 대서, 2011), 158.

관련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즉각적으로 칭의를 얻음과 동시에 성령에 의해 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생과 칭의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제임스 뷰캐넌은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돌아가심으로 성취하시고, 높아지심으로 수여하시려는 모든 축복들의 참여자가 된다. 우리는 동맹자의 머리로서, 또한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의 의롭다하시느 의의 참여자가 된다. 우리의 영적 머리 또는 생명을 수여하시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거룩하게 하시느 은혜의 참여자가 된다.”¹⁰⁾

월터 마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요 15:4-5). 먼저 칭의를 통해 사망의 일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히 9:14)....하나님은 복음으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¹¹⁾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선한 행위를 생산하게 하는 믿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행위들은 그들의 칭의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으며, 단지 그들의 믿음이 참되고 진정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칭의와 성화는 둘 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선언되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성령에 의해 내면과 삶이 거룩해지지만 이 생애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죄의 사면과 하나님의 용인이 절대로 성화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며, 성화보다 선행하는 것으로서, 성화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¹²⁾

성경은 내면의 변화와 도덕적인 삶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며 명령하지만, 그것을 칭의와 연관 짓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사람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과 결부시키는 것은 명백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칭의는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완결된 선언이지 신자의 삶 속에 계속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나 반드시 별개의 독특한 교리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개혁주의의 입장이었다. 이 구별이 상실된다면 바로 그곳에 행위가 칭의와 연계되며 복음은 왜곡되어지는 것이다.”¹³⁾

로마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며 혼합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행위를 칭의의

10) 제임스 뷰캐넌, 『칭의 교리의 진수』, 신호섭 역,(서울: 지평서원, 2002), 429.

11) 월터 마샬, 『성화의 신비』, 장호준 역(서울: 복있는 사람, 2010), 183.

12) 제임스 뷰캐넌, 437-438.

13) 필립 입슨, 『칭의론 논쟁』, 석기신, 신호섭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243.

근거로 삼는다. 그들은 물세례에 의해서 신자에게 주입된 은혜에 의한 믿음과 선한행위를 칭의의 유지와 증가를 위한 보충적인 공로로 삼기 때문에 최종적인 칭의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과 분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로 묘사했다(고전 1:2; 참조. 1:30; 6:11).....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행동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 특권적 지위에 의한 것이다(살전 4:7).”¹⁴⁾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들 바깥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획득된 완전한 의를 믿음에 의해 전가 받는 것이며,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상실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최상의 행위들조차도 잔존하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들 자신의 행위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최종적 칭의를 위해 다른 부가적인 조치로서의 행위들이 필요하지 않다. 칭의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나 행위와는 전적으로 관계없는 것이다. 칭의는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가졌음에도 남아 있는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로 물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칭의 그 자체는 우리 내부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지위)에 관한 우리 밖에서의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 행위이다. 칭의를 중생과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의 종교의 문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¹⁵⁾

카톨릭의 칭의론은 신자가 의롭게 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분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런 결과로 칭의를 위한 인간의 행위의 필요성과 중대성이 확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종교개혁이 발견한 ‘오직’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구원 사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대한 표현이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인간의 행위를 부분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입장을 불신앙으로 묘사하고 ‘다른 복음’으로 단호히 배격한다.

결론

칭의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어왔음에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종말까지 이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신학적 오류들에 대한 성실한 비평작업은 우리의 몫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무익한 시간낭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피상적 이해를 더 풍성하고 깊게 하는 유익을 줄 것이다.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의 수혜자만 되려는 수동적이고 나태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도전이 주는 자극을 계기로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이다.

14) 필립 입슨, 242.

15) 필립 입슨, 129.